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논란’

군, 1인당 50만원 지급 조례 제정...시민단체 ‘혜택 못받는 특성화고생 차별’ 폐지 촉구

대학간 학생들만 지급하는 ‘진학 축하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 등은 최근 영광군의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됐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진학 축하금 조례는 대학 입학하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광군의회의에서 의결되고 7월 1일 공포(조례 제2727호)돼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신입생부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졸업 이후 바로 취업전선에 나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논란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영광군 소재 6개 고등학교 졸업생 420여명 중 2021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83%선으로 20%에 가까운 비(非)진학 학생들에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던 취업을 하던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군의회의가 신중하지 못한 조례를 만들어 취업하는 특성화고 졸업생과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격려의 못할망정 차별을 주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특성화고교 지도교사 A씨는 “정부에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영광군의회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학벌 없는 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벌 차별이다”며 “영광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을 폐지하고 학벌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회 측은 “해당 조례는 지역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3년 이내 진학할 사람의 기간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도 완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제시된 개정안 역시 졸업생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조항 중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이상이 영광군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으로 명시돼 있는 등 약용 가능한 헛점이 발견된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광군과 군의회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졸속으로 제정했다는 비난여론을 접하며 수용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군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 해양바이오 및 치유산업 투자 설명회.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온택트 투자 설명회

완도군, 바이오협회 회원사·기업인 등 200명 참여

완도군이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해양바이오와 해양치유산업 입지의 강점을 알리는 온택트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기업인 등 200여명이 ‘옴트전남투브’를 통해 참여했다.

군은 지난 6월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 설명회에 이어 이번엔 두 번째로 온택트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해양바이오 및 해양치유 전문가 5명이 참여해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치유산업 가치, 지방 소멸 시 해양 도시의 극복 방법, 완도산 해조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방안 등 완도군 해양바이오·치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군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과 해양치유레저리조트 및 골프테마파크 등 1조원 규모의 민간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다시마, 톳, 미역 등 해조류를 특화한 건강기능식품 등 60여 제품 특허 등록을 마치고 해조류 활성소재 인공 생산시설 구축 등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양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해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해조류의 코로나 19 억제 효과도 검증을 거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안환옥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은 “완도는 해양과 산림이 어우러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세계가 인정한 천혜의 지역”이라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의 최적지인 완도에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 및 치유산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어묵’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100억 투자 HACCP 공장 건립...시, 용역보고회 개최 사업성 분석

목포시가 ‘목포어묵’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목포시는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어묵 시장 현황 조사를 통해 목포어묵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협) 가공공장 규모 선정 및 관리 방안 수립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세부추진계획 기초가 될 목포어묵 브

랜드 이미지 사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지역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보고회에 참석해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검토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목포어묵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은 지난해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대양산단 내에 HACCP 시설을 갖춘 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특화어묵 개발, 목포어묵 브랜드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 전문가 컨설팅과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목포어묵 자문위원회 구성, HACCP 가공공장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어묵이 목포의 간판 수산물 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목포시가 전국 제 1의 수산식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완성도 높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행정서비스 질 제고” 무안군 ‘전문관 제도’ 확대

인사·수당 우대·3년간 전보 제한...업무 연속성 등 기대

무안군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전문관’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안군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전문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은 현재 공연장 관리와 농기계 임대 관련 업무 등 4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관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관은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예정이다.

전문직위는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직원들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해당 직위의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3년간 타부서로 전보가 제한되지만, 인사 및 수당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무안군은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1월 중으로 전문직위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해당 직위에 대해 전문관 신청과 심사 과정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직사회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을 통해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진도군, 섬 부동산 민원실 운영

19일 조도면사무소 찾아

진도군이 섬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은 오는 19일 조도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교통이 불편한 조도면 주민들이 진도군청이나 법무사 사무소 등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민원실 운영에 나섰다.

오는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신청서와 보증서 등을 군청으로 접수하면 사실 관계 등을 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영암군 직원 휴게 공간 ‘소통공감실’ 호응

영암군이 군청 본관 2층과 신관 3층에 직원휴게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직원휴게실은 코로나 19로 인해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도록 전통한옥 카페 분위기의 ‘소통공감실’을 조성해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은 지 40년이 돼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비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고 미활용 자투리 공간을 휴게시설로 조성해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 매점과 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행하는데 불편했던 군 청사 주변 화단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정비해 직원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또 청소업무 직원의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에 조성된 소통공감실이 직원들에게 적극 활용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심신의 휴식과 행정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